

謹 賀 新 年



늘봄

Vol.04



복지관 이모저모 **Story**

2019년 신규프로그램 미리보기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첫 걸음! 같이 가체! 제21회 오뚜기들의 글발표회
글로 삶을 표현하다

봉사를 통해 삶이 변했다는 깨비선생님! **Right to speak**
느끼Go, 경험하Go, 즐기Go, 떠나자! 해외로! **Company**

겨울철 건강관리 꿀 팁(Tip) **Column**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소개합니다. **Partnership**
2018년 복지관과 동행했던 자원봉사자님 & 후원자님
후원금 수입 · 지출내역 및 안내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Seoul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Cerebral Palsied



03 따뜻한 나눔, 소중한 인연 건영볼링센터 ‘고종민 대표님’

Story

- 04 복지관 이모저모
- 07 2019년 신규프로그램 미리보기
- 08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 10 첫 걸음! 같이 가치! 제21회 오뚜기들의 글발표회
- 12 글로 삶을 표현하다

Right to speak

- 14 봉사활동을 통해 삶이 변했다는 깨비선생님!

Company

- 16 느끼Go, 경험하Go, 즐기Go, 떠나자! 해외로!
(뇌성마비 자조단체 연합 해외문화탐방)

Column

- 18 겨울철 건강관리 꿀 팁(Tip)
- 19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소개합니다.

Partnership

- 20 2018년 복지관과 동행했던 자원봉사자님
- 21 2018년 복지관과 동행했던 후원자님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소식지 “늘봄” 통권4호

발행일 2018.12 발행인 정행건 발행처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편집 기획팀

주소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전화 02-932-4411,2,4,5 팩스 02-932-4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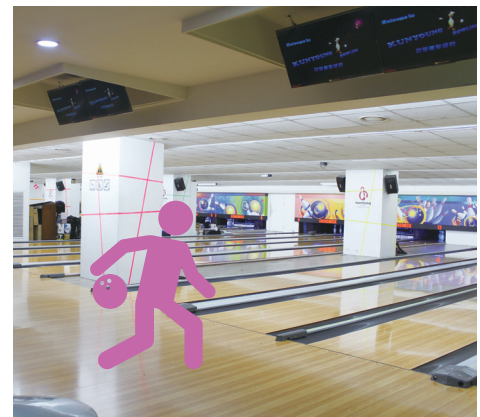
이메일 srccp@hanmail.net 홈페이지 www.srccp.or.kr (QR코드▶)

디자인&인쇄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02-812-7176



“늘봄”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서 뇌성마비장애인과 지역사회주민을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발간물입니다.

따뜻한 나눔, 소중한 인연 건영볼링센터 ‘고종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장애인볼링협회 및 노원구볼링협회 회장 고종민입니다. 저는 남자 프로볼러 1기로 1995년도에 최연소 프로로 합격해 볼링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건영볼링장**과의 인연은 **2006년**부터 시작됩니다. 2006년도 건영볼링장을 처음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들볼링클럽(장애인볼링클럽)’**의 회원분들이 저희 볼링장을 이용해 주셨고,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의 볼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볼링장 이용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볼링클럽이 한 팀, 두 팀 저희 볼링장으로 모여 볼링을 즐기게 된 것이 장애인 볼링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활동하게 된 계기입니다.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과는 **2013년부터 인연**을 맺어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뇌성마비인 볼링교실, 부모볼링교실** 등의 활동을 함께하고 있네요. 볼링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늘 밝은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장애인단체와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서울시립뇌성

마비복지관과도 인연이 되어 이번에는 MOU협약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뇌성마비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볼링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건영볼링장의 경우 규모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락산 인근에 큰 볼링센터가 생길 예정으로 그 이후에는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볼링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과 MOU를 맺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볼링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볼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볼링을 접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뇌성마비인과 여러 장애인들이 볼링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반기 복지관 이모저모



◀ 7월 4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국 민속촌으로 반가운교실 문화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다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7월 23일 ~ 8월 10일 ▶

뇌성마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활동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15개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 7월 24일 ~ 25일

풀뿌리단체 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뇌성마비장애인협회 '청우'와 함께 연합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꿈두리봉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광진리 큰바다 해수욕장의 장애인 해변캠프'로 다녀왔습니다.

7월 31일 ▶

지역사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자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 8월 11일

뇌성마비 아동·청소년과 AA생명 나누미봉사단이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로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2010년부터 봉사해주신 나누미봉사단 덕분에 실내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8월 19일 ~ 21일 ▶

뇌성마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힐링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떠난 이번 캠프에서는 제주도의 명소를 찾아 여유를 즐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8월 19일 ~ 21일

부모님들이 힐링캠프에 떠난 시간 동안 자녀들은 강원도 강릉 일대로 푸른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고, 가면 만들기, 영화관람 등의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9월 20일 ▶

한가위를 맞이하여 재가 뇌성마비인 72가정에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디딤돌봉사단,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등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습니다.





NEWS



◀ 10월 4일

경기도 파주에서 재가 뇌성마비인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관에 바라는 점, 앞으로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5일 ~ 6일 ▶

기혼 뇌성마비인 9가정이 충남 당진으로 가족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왜목 해변 등을 관람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 10월 12일

뇌성마비 아동·청소년 25명이 AIA생명과 함께하는 토트넘 코칭 축구 클리닉에 참여하였습니다. 토트넘 구단 코치진과 함께 축구 기술을 배우고 미니게임도 진행하는 등 신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10월 29일 ~ 11월 2일 ▶

제11회 노원구장애인미술전이 노원구청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복지관 이용고객 12인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작가들이 화합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11월 25일 ~ 28일

풀뿌리 뇌성마비인 단체 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 문화 팀방을 다녀왔습니다. 오키나와월드, 슈리성 등을 관람하며 다양한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14일 ▶

11월 6일부터 진행되었던 방송모니터요원 양성교육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6명의 수강생들은 교육을 통해 방송모니터 개론, 모니터링론, 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12월 14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오뚜기들의 글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32명의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글발표회에서 본인들의 작품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21일 ▶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복지관에서 소망의 나무 만들기, 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를 통해 복지관 이용고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이 되었습니다.



Story

하반기 오투기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이모저모**



9월 27일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동대문 디자인플라자로 '루나파크전: 더 디자인 아일랜드'를 관람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관람하며 미술적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11월 8일

파란마음 주간보호센터 김경일 센터장님의 인권교육이 있었습니다. 권리와 차별을 주제로 나만의 인권 나무를 만들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러 기관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11월 22일

노원의용소방대와 함께 롯데월드몰 아쿠아리움으로 겨울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신기한 해양생물도 구경하고 바람도 쐬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반기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이모저모**



8월 8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롯데재단의 후원으로 총 143명에게 보조기기가 지원될 수 있었습니다.



10월 2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보조공학기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IT 보조기기, AAC 기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 3일

서울시 동북권 5개 자치구 공무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간담회를 진행하여 2018년도 사업 경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2019년도 사업추진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하반기 오투기하우스1, 2호 **이모저모**



8월 13일

오투기하우스 입주민들의 현재 심리상태와 감정 등을 가면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을 통해 각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월 13일 ~ 15일

오투기하우스 식구들이 2박 3일간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동백섬, 자갈치시장도 둘러보고 해운대 밤바다의 야경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월 1일

제36회 오투기 축제에서 오투기하우스 입주인 권선화님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 부문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복지관 신규프로그램 미리보기



<p>1. 오뚜기 기자단</p>	<p>대상 : 성인뇌성마비인 내용 : 복지관 이용고객이 기자가 되어 복지관 안팎의 일들과 사람들을 직접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문의 : 가족문화지원팀 정지혜 070-4258-7259</p>
<p>2. 오뚜기 열린강좌</p>	<p>대상 : 본 복지관 이용고객, 가족, 보호자, 지역사회주민 내용 : 본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가족들의 욕구에 맞는 강좌를 연중 열고자 한다. 문의 : 가족문화지원팀 정지혜 070-4258-7259</p>
<p>3. 장애인차별금지 캠페인</p>	<p>대상 : 지역사회주민 내용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안내하고 이해시켜 법을 준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문의 : 지역권익옹호팀 김지원 070-4258-7318</p>



2019년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신규프로그램 미리보기

<p>1. 보조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및 시제품제작 등</p>	<p>대상 : 서울시 거주 장애인 및 노인 등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이용고객 내용 : 수입에 의존하여 상용되고 있는 보조기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기기 국산화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기립훈련기, AAC 등 다양한 보조기기 영역에서 국산화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070-4258-7444</p>
-----------------------------------	--

Story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상담사례지원팀 조은정 사회복지사

온종일 바닥에 머리를 찡고 있는 김○○아동은 정신장애를 가진 엄마와 함께 조그만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김○○아동은 또래 친구들보다 아주 작은,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담배 냄새가 온몸에 찌들어있던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바닥만 보고 한자리에서 맴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김○○아동의 부모님**은 끼니도 잘 챙기지 않고 30년이 넘도록 하루에 담배 두 갑씩 피우며 김○○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 김○○아동과 엄마는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증장애가 있는 김○○아동**에게는 약취가 진동하였고 제대로 먹지 못해 점점 더 야위어갔으며 바닥에 머리를 찡는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빠보다 정신장애가 심했던 김○○아동의 엄마도 매일같이 정신과 약을 챙겨주던 아빠가 떠난 후 약물 관리가 전혀 안 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질환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김○○아동에게 밥을 차려줄 수도 없었고 활동지원사 손에 맡겨져



학교에 가는지도 몰랐으며, 오히려 김○○아동의 활동지원사에게 “내 아이가 아니니 1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안락사 시켜주세요”라며 망상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김○○아동과 엄마에게 변화를 위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노원구청, 민관 사례관리기관들과 한자리에 모여 김○○아동과 엄마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김○○아동 엄마의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가 시급히 필요했지만 잘못된 인지적 왜곡으로 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 버렸으며 치료를 권하러 찾아가간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폭언, 위협을 가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아동의 할머니, 이모와 연락이 닿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일단 김○○아동을 시설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아동과 엄마에게는 일분일초가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소변이 가득 차 흘러넘친 기저귀를 차고 있어 진물이 생긴 김○○아동을 복지관으로 데려와 밥을 먹이고 깨끗이 씻겨주기도 하고, 노원구청과 동주민센터와 함께 김○○아동 가정을 지켜보며 위험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한밤중에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노원구청에서는 단기적이지만 긴급 입소가 가능한 시설을 모색하였고, 김○○아동의 장기적인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전국에 있는 생활시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생활시설 입소가 쉽지 않았고 김○○아동 엄마의 정신질환은 더 심해지면서 김○○아동과 엄마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만 갔습

니다. 공공기관과 협업한 끝에 끈질긴 설득을 통해 김○○아동 **외할머니의 동의하에 김○○아동 엄마의 입원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은 외할머니가 김○○아동을 돌보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김○○아동 엄마가 입원해 있는 기간에,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집 내부를 복지관에서 소독, 방역, 의류 정리 등 쾌적해질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주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장애 재진단이 필요한 김○○아동에게 **사례지원비로 검사 비용 전액을 지원**하였고 그에 맞는 정부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김○○아동 엄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안정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아동은 다행히 예전보다 바닥에 머리를 찡는 행동이 줄어들었고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들고 예쁘게 웃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김○○아동을 만나게 되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지지체계가 오히려 많이 제한되어 있음을 느꼈고 정신장애로 인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기까지, 정신장애 때문에 김○○아동과 자신을 사회 속에서 단절시켜버린 김○○아동 엄마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들을 위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의 부재가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바닥만 바라본 채 아직도 행복을 기다리고 있을 김○○아동에게 작게나마 **행복은 매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합니다.

첫 걸음! 같이 가치! 제21회 오뚜기들의 글발표회



2018년 12월 14일(금) 오뚜기들의 글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뚜기들의 글발표회는 꿈 많은 뇌성마비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자기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1998년부터 진행된 오뚜기들의 글발표회는 **올해 21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아동·청소년들에게는 1년에 한번 뿐인 발표회가 설레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오뚜기들의 글발표회는 뇌성마비 아동·청소년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표함으로써 창작력과 발표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1년 동안 작품을

준비하고 연습하다 보니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어 서로의 고민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오뚜기들의 글발표회를 위해 **올해는 비장애인 학생도 발표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평소 뇌성마비장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 모인 32명의 장애·비장애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감정을 글

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준비과정부터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 덕분에 행복한 글발표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오뚜기들의 글발표회에는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2,299분의 응원기부와 664분의 댓글기부, 201분의 공유기부, 33분의 직접기부 등 총 3,197분의 손길이 모여 행사에 필요한 책자도 제작**하고 진행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뚜기들의 글발표회 당일, 학생들의 떨려하는 모습과 진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학생의 부모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를 낭송하며 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참여하는 글발표회가 되었습니다.

글발표회가 끝난 후 다과회를 진행하며 장애·비장애학생들이 글발표회 소감을 나누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새로운 인연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비장애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처음으로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함께해 더 의미 있었던 오뚜기들의 글발표회!

비장애학생의 소감과 글발표회 참여 학생 어머니 인터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글 발표회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처럼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뚜기들의 글발표회’와 같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발표회에 참여한 아이들을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볼 수 있어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또한 글과 그림 속에서 아이들의 희망이 느껴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더 좋은날이 많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발표한 글처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좋은 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Story



글로 삶을 표현하다.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홍보서포터즈단
오민택, 김지원, 장수희, 김익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서는 이용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도예, 노래교실, 보치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꿈을 키우고 즐겁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복지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작문교실에 대한 소개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신 회원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작문교실은 뇌성마비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문학작품도 완성하고 원고지작성방법 교육, 작품 낭송 등을 통해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말로써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글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주최하는 **“뇌성마비 시인들의 시 낭송회”**에서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회원들의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당선자들의 글을 발표함으로써 작가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작가들도 멋진 모습으로 시 낭송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금요일은 작문교실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프로그램 시간이 되자 활기찬 분위기가 교실 안에 가득합니다. 기성작가들의 글을 읽고 토론도 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또한 나만의 글을 쓰는 일에도 열심입니다. 글로써 회원님들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작문교실 회원들은 **작문교실을 통해 마음속 깊이 숨겨온 생각들을 꺼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장애를 통해 상처 입고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삶과 고통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야유회나 공연 관람 같은 다양한 경험이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나 수필을 창작하는 일은 회원님들에게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이렇게 모여진 글들로 공모전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큰 성취감이 되어 돌아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회원님들의 시를 모아 시집으로 엮습니다. 벌써 다섯 권의 시집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작문교실 회원들은 창작이라는 활동이 때로는 어렵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책을 곁에 두는 계기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작문교실 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다 보니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글을 읽고, 듣고, 나누며 글에서 오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글에 실린 감정들이 독자에게 전달되고 울고 웃는 작가의 감정에 동요되기도 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창작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의 따스함을 알리는 작문교실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글을 쓰고 있을 작문교실 회원들을 응원합니다.

2018년도에 복지관에서 처음 구성된 홍보서포터즈단은 글쓰기에 소질이 있는 뇌성마비인을 발굴하여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홍보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복지관을 알릴 수 있는 글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글은 우리 복지관 홍보서포터즈단에서 작문교실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Right to speak

봉사를 통해 삶이 변했다는 깨비선생님!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아낌없는 분이 계십니다.

2013년 우리복지관에 **도깨비처럼 나타난 공경희 봉사자님!**

공경희 자원봉사자님은 최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수상소감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공경희라고 합니다.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서는 가정결연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깨비선생님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지요.

깨비선생님이라는 별명이 인상 깊은데요, 어떻게 갖게 된 별명인가요?

제가 봉사도 하며 근무하던 곳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처럼 나타나 재미있게 놀아주는 선생님이라고 지어준 별명입니다. 여러 곳에 봉사를 다니다 보니 정말 도깨비처럼 여기저기 나타나 봉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복지관에 봉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릴 때 저희 집은 흔히 말하는 대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때문인지 젊은 시절부터 봉사

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죠. 저는 “자원봉사 = 후원” 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지역신문을 보고 돈으로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봉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 근처 복지관을 찾아간 것이 자원봉사를 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봉구에 있는 복지관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다 보니 복지관 선생님이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과도 인연을 맺게 되었죠.

봉사활동을 무려 18년 동안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 인가요?

봉사를 시작하고 제 삶의 관이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보다 그냥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저는 워낙 사람을 좋아 하는지라 활동을 통해 만나는 인연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활동 자체가 저에게 행복이고 즐거움이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활동을 시작한 지 18년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발을 디뎠던 유치원 교사를 했던 경험으로 아이와 놀아주려고 시작했던 활동이 어느덧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같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남편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정결연을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 관심도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시작한 장애인 시민옹호인 1기로 교육과 활동에 동참하여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의 무게만큼 부담이 더 생겼지만, 살아가는 동안 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습득하여,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앞으로도 활동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관과 함께할 날들이 어떤 방향이길 원하시나요?

봉사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가 '콩나물비빔밥'인데요. 제가 가정결연을 나갔던 가정의 이웃분들과 콩나물을 기른 적이 있어요. 가정결연을 갔던 곳의 이웃 주민들이 본인들 집에도 와서 봉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모든 집을 다니며 봉사하기에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가정결연 나가는 날 옆집, 앞집의 이웃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결연 가정에 모여들게 되었어요.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각자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 노원구 장터 행사에서 다 함께 비빔밥도 만들어 먹었었죠(하하). 저는 앞으로 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던져주고 서로 친해지고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결연은 재가 뇌성마비인을 대상으로 뇌성마비인의 가정에서 자녀양육, 학습지도, 이동보조, 가정생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의 경우 1,525회의 가정결연이 지원되었습니다.

Company

느끼Go, 경험하Go, 즐기Go, 떠나자! 해외로!

(뇌성마비 자조단체 연합 해외문화탐방)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해외는 못 가봤습니다.】 제 질문에 복지관 직원들 중 일부 직원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인접 국가인 일본, 중국의 경우 국내여행과 비교하여 경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번 기회에 뇌성마비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폭넓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참가하는 뇌성마비 자조단체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이 주최하여 뇌성마비인의 벗 어우러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총 4개 단체 연합은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오키나와로 문화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평소 장애로 인해 이동의 제약이 많고 외부활동의 기회가 적어 해외를 경험해보지 못한 뇌성마비인들을 위주로 선발되었습니다.

복지관은 65명의 해외문화탐방을 위한 경비를 준비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예산의 부족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인카금융서비스(주)에서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 후원과 자원봉사자 지원을 약속하며 참가 뇌성마비인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후원한 **인카금융서비스(주)의 다이렉트 총괄대표이사인 김선식 대표**는 1991년 복지관과 자원봉사자로 인연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28년간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해오고 있으며, 매월 뇌성마비 자조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문화탐방에는 후원해주신 인카금융서비스(주)외에도 **아시아나항공(주)-아시아나 항공사와 본투어 인터내셔널의 협조** 덕분에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본투어 인터내셔널의 경우 평소 장애인 단체 행사를 많이 진행한 노하우로 많은 가이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주)-아시아나 항공사는 입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 시 항공승무원 이외에도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등 행사가 안전하고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조로 문화탐방에 나선 뇌성마비인들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슈리성, 오키나와 월드, 오키나와 국영기념공원, 국제거리, 평화재래시장, 복합쇼핑몰, 트로피칼 비치 등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탐방하며 경험하고 식사 또한 여러 가지 일본 현지식들을 맛보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 담당자였던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일본의 문화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작은 것 하나 까지도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이 참가자들에게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일본에서 경험한 것들이 해외에서의 첫 경험이었어서 일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가족”**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가한 뇌성마비인들의 대부분이 가족이 함께 하였고 불가피하게 참가하지 못한 가족을 대신하여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자원봉사자 지원을 해준 인카금융서비스(주)의 직원들과 활동지원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뇌성마비인들 역시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은 보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주)는 은행·증권 등 전 금융권 상품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금융판매 전문회사로 31개 손해·생명보험사와 제휴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분석한 후, 종합자산관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인카금융서비스(주)의 김선식 대표님은 1991년부터 우리 복지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꿀 팁(Tip)

먹거리 팁(Tip)

겨울철에는 생선이나 동물성 식품같이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지방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의 신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장으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손과 발로 가는 혈액이 적어짐에 따라 손발이 시리게 됩니다. 이때 지방질의 음식을 먹거나 수영, 자전거 타기, 러닝 등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의 펌핑 강도를 올려 혈액을 잘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꿀 팁(Tip)

겨울날 운동을 하면 체내의 혈액순환과 근육순환 움직임이 발생하여 면역력이 증가되어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위험이 적어지고 신체의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운동을 잘못 실시할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셔야 합니다.

- 꿀팁1** 겨울철 운동은 저녁에! 오전은 우리의 신체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오후 운동을 권장합니다.
- 꿀팁2** 운동 강도는 70~80%로 줄이기! 겨울철에는 따뜻한 날보다 체온유지에 소모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낮추어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꿀팁3** 스트레칭 잊지 말기! 스트레칭을 통해 체온을 높이고 근육이나 관절에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겨울철에는 운동 전 스트레칭을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추운날씨엔 우리의 몸이 움츠러 있기 때문에 먼저 가벼운 러닝, 활동 등 큰 동작을 통해 혈액순환을 도와준 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 팁(Tip)

그렇다면 추운 겨울철 운동을 했을 경우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을까요?

- 효과1**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더운 여름보다 추운 겨울이 칼로리 소모에 효과적입니다. 때문에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기초대사량의 상승으로 많은 칼로리가 소비되기 때문에 체중조절에 제격입니다.
- 효과2**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추운 날에는 혈액이 심장으로 몰려 혈액의 신체순환이 어려워집니다. 겨울철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을 펌핑 시켜 심장의 건강을 지켜주고 혈액도 순환하기 좋습니다.
- 효과3** 추운환경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추운 날씨에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을 올리고 떨어뜨리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신체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이불 속을 벗어나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귀찮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여 올바른 운동을 실시한다면,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불속에서 나와 운동할 종목과 장소를 찾아보고 계획을 구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소개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공적급여제도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기립훈련기,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대화용 장치 등 **총 28종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는 서울시 동북권역 5개 자치구(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인 당사자가 책자를 보고 보조기기를 신청, 업체에서 납품 받아 왔는데요,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사용함에 있어 사용 목적과 다른 착오가 종종 발생해 사용의 부적합, 당사자의 불편함이 수반되어 왔었습니다.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품목, 기능, 사용성, 안전성 등 다각적인 평가와 시험적용 등 실사용성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최적화된 보조기기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등록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Tip!

매년 상반기에 사업비가 일괄 교부되기에 신청이 많을 경우, 예산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신청바랍니다!

올해의 신규 품목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비중이 높은 뇌병변, 언어장애의 경우 일상적인 대화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데요, 가족, 선생님, 지인 등과 대화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는 보완 **대체의사소통기기(AAC)**가 올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스마트 탭 +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여 의사소통기기 사용과 동시에, 인터넷 서핑 등 다양한 교육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품목이 추가된 만큼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로 문의주세요. (070-4258-7257, 7444)

Partnership

2018년 복지관과 동행했던 자원봉사자님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14,897시간 3,853번의 따뜻한 손길이 닿았습니다. (2018.12.31.기준)

개인봉사자

강균민, 강범석, 강봉조, 강수지, 강수학, 강승현, 강아영, 강양희, 강유진, 강지현, 강지호, 계성은, 고근순, 고덕순, 고승이, 고유정, 고윤성, 고인옥, 공경희, 곽민정, 곽숙례, 구명근, 구영민, 구은아, 권민경, 권병수, 권소영, 권재수, 길성희, 김강수, 김경민, 김길만, 김나운, 김남진, 김동환, 김두영, 김륜래, 김명순, 김명자, 김명주, 김미경, 김미순, 김미영, 김민경, 김민지, 김민호, 김범수, 김범진, 김보경, 김봄미, 김상건, 김서현, 김선귀, 김선향, 김성민, 김성수, 김성연, 김소윤, 김소은, 김소진, 김소희,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지, 김순이, 김순자, 김승근, 김신영, 김신원, 김여진, 김연숙, 김연화, 김영란, 김영순, 김영신, 김영우, 김영학, 김영혜, 김예린, 김예은, 김옥규, 김옥영, 김용명, 김유나, 김은성, 김은영, 김재원, 김점남, 김정겸, 김정민,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은, 김제윤, 김종선, 김주연, 김주영, 김준형, 김지원, 김지윤, 김지현, 김진경, 김진호, 김진홍, 김찬양, 김창원, 김창훈, 김태균, 김태훈, 김학배, 김한비, 김한솔, 김해찬, 김현민, 김현서, 김현우, 김현지, 김형선, 김혜란, 김혜은, 김혜정, 김희령, 나예은, 나현옥, 남강현, 남소희, 남영만, 노점자, 노차예, 노해연, 노혜정, 노취연, 도가영, 도기목, 류광호, 류효윤, 마수민, 마화영, 명미현, 문가영, 문수진, 문채원, 민고은, 민병현, 민숙진, 박대호, 박명인, 박문강, 박미섭, 박상언, 박상호, 박상훈, 박성원, 박세미, 박소은, 박소금, 박시원, 박아린, 박양위, 박영숙, 박윤정, 박인서, 박재현, 박정미, 박정진, 박종연, 박종현, 박주혜, 박준우, 박지우, 박한솔, 박현우, 박희성, 방수진, 배근우, 백서연, 백정경, 백주연, 백지우, 백희영, 변지윤, 사우진, 서덕현, 서소영, 서유진, 서정화, 서혁우, 서혜인, 설평권, 성가빈, 성래현, 성승연, 손명준, 손민수, 손태순, 손훈숙, 송민교, 송유진, 송윤지, 송재혁, 송현진, 송혜은, 신동선, 신민섭, 신세연, 신소정, 신 솔, 신우성, 신윤선, 신의정, 신인철, 신희민, 신희성, 심은진, 심재석, 안경희, 안병숙, 안 솔, 안예린, 안정만, 안준수, 안해인, 양복자, 양서영, 양승희, 양재현, 양정우, 양해인, 양희난, 엄장민, 엄혜민, 여경애, 오기동, 오동혁, 오래신, 오세희, 오종원, 오진성, 옥기표, 왕기환, 왕아연, 왕효원, 용석달, 우정현, 우정희, 원선영, 원소연, 원유희, 원채연, 원희정, 위성진, 위세은, 유가현, 유경숙, 유승아, 유원선, 유재원, 유주연, 유준규, 유호성, 윤민영, 윤소빈, 윤정순, 윤진성, 윤현주, 윤호선, 이고은, 이규선, 이궁호, 이기선, 이나경, 이난수, 이난주, 이다영, 이동준, 이미영, 이미진, 이민우, 이상수, 이상진, 이상후, 이서연, 이선재, 이선희, 이성도, 이성인, 이성훈, 이수연, 이수현, 이숙자, 이숙희, 이순업, 이순영, 이순옥, 이순희, 이슬기, 이승현, 이승환, 이승희, 이애경, 이양고, 이영미, 이유민, 이유진, 이윤영, 이은경, 이은숙, 이은재, 이은정, 이응준, 이응창, 이인숙, 이재덕, 이재필, 이재현, 이정연, 이종태, 이주영, 이주철, 이주현, 이주희, 이준수, 이준영, 이지윤, 이지훈, 이진수, 이차배, 이채윤, 이채현, 이철우, 이 토 유 미 꼬, 이하경, 이하늘, 이현승, 이현진, 이혜령, 이혜원, 이희용, 이희준, 임민욱, 임민규, 임은숙, 임정식, 임지환, 임창한, 임희우, 장규리, 장명숙, 장서윤, 장수영, 장인근, 장성숙, 장종빈, 장준형, 장채원, 장혜란, 장희연, 장희주, 전도현, 전성조, 전은택, 전춘희, 전해성, 전해숙, 정갑숙, 정금순, 정덕자, 정동수, 정미선, 정민서, 정신하, 정상훈, 정석훈, 정소영, 정수연, 정연철, 정영진, 정영희, 정은우, 정유경, 정윤아, 정은미, 정재훈, 정정희, 정준화, 정지은, 정현영, 정현주, 정효선, 정희남, 조계남, 조계진, 조금옥, 조문주, 조민정, 조봉제, 조상우, 조상원, 조선익, 조성행, 조승의, 조연수, 조영훈, 조예원, 조원준, 조윤상, 조윤진, 조효림, 조희수, 지미숙, 지수정, 진성현, 차소화, 차은혜, 차희정, 채난솔, 채명자, 채승민, 천도희, 천수자, 천아정, 최가은, 최경옥, 최기현, 최 민, 최민서, 최민정, 최민지, 최서연, 최세영, 최수진, 최순임, 최승환, 최영숙, 최예은, 최용성, 최유나, 최유상, 최윤서, 최윤선, 최윤정, 최윤희, 최재영, 최정현, 최지수, 최진경, 최창덕, 최해솔, 최현경, 최혜윤, 최혜진, 최희용, 한덕순, 한동규, 한동석, 한민영, 한범석, 한성연, 한수연, 한은결, 한은찬, 한인화, 한재혁, 한혜원, 허지아, 허하정, 홍미경, 홍미아, 홍성진, 황수민, 황주석, 황호영

단체봉사자

KB국민은행 창동지점, 강북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건설공제조합 봉사단, 노원의용소방대, 대전대학교 사회봉사단 '초아', 디딤돌 봉사단, 롯데백화점 노원점 봉사단, 사회인봉사단체 '볼룸', 삼육보건대간호학과 봉사동호회, 서울교통공단 콜택시 사랑봉사단, 세계평화여성연합 서울북부지부 영신여자고등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주)블루레오, 코이카 봉사단

자원봉사 안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키워온 사랑과 재능을 뇌성마비인과 함께 나누어보세요.

- * 분야 : 문화 · 스포츠 · 직업프로그램 보조, 학습지도, 보육, 가정결연, 식당, 재능기부 등
- * 문의 : 방문, 전화(02-932-4415), 홈페이지(www.srccp.or.kr), 지역권익옹호팀 자원봉사 담당자



2018년 복지관과 동행했던 후원자님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해 후원금 123,592,760원, 후원물품 1,536점의 사랑이 쌓였습니다. (2018.12.31.기준)

개인후원자

강만희, 강명수, 강미나, 강민정, 강민찬, 강유정, 강인화, 강제이, 강철규, 강한구, 강혜란, 경소은, 고민지, 공경희, 공현식, 곽유정, 권선화, 권용운, 권종율, 권 준, 권희성, 길승미, 김가영, 김건섭, 김경수, 김경숙, 김경아, 김경연, 김규석, 김기환, 김남경, 김도경, 김도균, 김도현, 김도형, 김동만, 김동현, 김동환, 김동희, 김륜경, 김명숙, 김명애, 김명준, 김명화, 김문한, 김미란, 김미순, 김미현, 김 민, 김바다, 김범주, 김병호, 김병훈, 김보경, 김상권, 김상엽, 김상진, 김상환, 김상희, 김선식, 김선영, 김선화, 김성일, 김소라, 김수안, 김수영, 김수일, 김순영, 김순자, 김승미, 김안다, 김영미, 김영신, 김영아, 김영진, 김영현, 김옥근, 김용현, 김우석, 김운기, 김유진, 김은영, 김익진, 김인호, 김재선, 김재연, 김재우, 김정배, 김정보, 김정수, 김종민, 김종숙, 김주완, 김주용, 김주태, 김준식, 김준형, 김중집, 김지원, 김지유, 김진경, 김진아, 김진우, 김진의, 김창기, 김창욱, 김철순, 김태영, 김태희, 김한철, 김해나, 김해순, 김현성, 김현영, 김현옥, 김현우, 김현준, 김현지, 김현국, 김형국, 김형남, 김형수, 김혜림, 김호준, 김홍식, 김효선, 김희경, 김희진, 나성주, 나윤경, 나현승, 나현재, 남영만, 노명자, 노상민, 노상윤, 노선영, 노찬남, 라권찬, 라기도, 라윤진, 목진웅, 목진원, 민경현, 민년기, 민원식, 민정은, 민지혜, 민혁기, 박경훈, 박계순, 박광민, 박규남, 박기현, 박남수, 박단비, 박도원, 박문강, 박미순, 박미애, 박민수, 박병석, 박상민, 박상수, 박상용, 박상은, 박선희, 박소연, 박수진, 박수현, 박승희, 박애순, 박영숙, 박영재, 박옥자, 박윤옥, 박인서, 박정원, 박종록, 박주영, 박주하, 박준우, 박준현, 박지은, 박지훈, 박춘우, 박혜순, 박희숙, 박희재, 방인선, 배예찬, 배은서, 서강은, 서다은, 서승원, 서예린, 서재희, 서정순, 서현민, 서현희, 석동휘, 선경아, 성민제, 성원석, 성준혁, 성훈식, 손경수, 손인영, 송양분, 송은숙, 송은연, 송재혁, 송종권, 신은미, 신정희, 신현철, 신희숙, 심명희, 심익보, 심정보, 심지연, 안갑순, 안경옥, 안다영, 안대철, 안소연, 안소희, 안신애, 안지은, 안태식, 양승호, 양정미, 양정희, 엄윤희, 엄현준, 엄명자, 엄재명, 오명원, 오연서, 오영민, 오영수, 왕미영, 우성민, 우해중, 원희식, 유대권, 유선미, 유성용, 유세리, 유은영, 유재임, 유 진, 유태영, 윤민환, 윤선미, 윤성완, 윤수현, 윤승휘, 윤장남, 윤재명, 윤정열, 윤혜경, 윤희선, 이경량, 이계명, 이고은, 이기선, 이남철, 이다은, 이명수, 이미숙, 이미휘, 이병택, 이봉수, 이서휘, 이선아, 이수연, 이순옥, 이순향, 이순희, 이승재, 이연주, 이영식, 이영진, 이예은, 이용원, 이우혜, 이원민, 이원석, 이은영, 이은희, 이인구, 이재현, 이정미, 이정석, 이정은, 이주연, 이주일, 이종구, 이지연, 이지영, 이지우, 이지윤, 이진옥, 이진용, 이진주, 이창호, 이춘양, 이춘희, 이태희, 이혜우, 이혁수, 이현주, 이혜경, 이훈정, 임경빈, 임남택, 임미남, 임성호, 임수혁, 임수경, 임우기, 임원용, 임정규, 임채린, 임태원, 임하을, 임혜진, 임희은, 장광윤, 장기일, 장기훈, 장노산, 장미자, 장미정, 장민호, 장서윤, 장양순, 장영순, 장영숙, 장영호, 장은영, 장태순, 장현우, 전고은, 전민호, 전병윤, 전용일, 전해경, 정경원, 정 근, 정금례, 정다은, 정덕자, 정동인, 정명순, 정석구, 정소영, 정수인, 정승민, 정양훈, 정연우, 정영구, 정예원, 정예훈, 정유지, 정은성, 정은희, 정주영, 정지혜, 정해정, 정행건, 정현남, 정혜선, 정혜진, 정희경, 조도행, 조범준, 조상원, 조성민, 조영석, 조유정, 조은정, 조인호, 조재정, 조정훈, 주미숙, 주지희, 주한진, 진미화, 진은경, 차상설, 차세광, 차정진, 차지애, 차하은, 차하준, 채만례, 채희정, 천은정, 최경란, 최경배, 최경실, 최 권, 최금순, 최나혜, 최동민, 최동현, 최미향, 최영민, 최윤석, 최윤정, 최재영, 최정선, 최정현, 최지선, 최진윤, 최현근, 최혜옥, 추완식, 탁성희, 탁옥인, 하승보, 한미순, 한범석, 한상근, 한상준, 한선희, 한은혜, 한주희, 함병직, 현다은, 현도영, 현익환, 홍선화, 홍성우, 홍아람, 홍준호, 홍찬호, 홍현태, 홍현호, 황경숙, 황계원, 황금희, 황인권, 황인범, 황정순, 황진도

단체후원자

(사)인카나누미, (주)코리아델로스KD, AIA생명 나누미, 건설공제조합, 고려대경영대학학생회, 구세군후생원, 국민은행창동지점, 노원교육 복지재단, 농협하나로마트창동점, 다운복지관,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서울시장애인 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성민복지관, 에이블라이프, 용산장애인복지관,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원암유치원, 하계동주민 센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투자공사

오뚜기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후원자

김민호, 김 순, 김순덕, 김영훈, 김예슬, 김예원, 김정자, 박종탁, 백송지, 송정희, 이국현, 이기주, 이명자, 이명희, 이민자, 이성기, 이승한, 이용식, 이종거, 이창근, 이창성, 이혜경, 정소라, 주명주, 주보경, 주한일, 최미경, 한기숙, 한승용, 한정애, 홍순주, 황미현

※ 보내주신 후원금은 교육비, 의료비 및 생계비 등 뇌성마비인들의 보다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뇌성마비인들에게 밝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Partnership

모금함 설치업체

구분	상호명	종류	주소	전화번호
1	신민주참쌀순대	음식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03가길 29	02-976-8749
2	알파문고	문구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1(노원빌딩)	02-935-8382
3	논골집 노원점	음식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17-3	02-930-0080
4	한우리마트	슈퍼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101	02-932-6228
5	삼팔강땡	음식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3길 51(상아프라자) 1층	02-997-6303
6	하나마트	슈퍼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4다길 2	02-939-6688
7	하나마트(2호)	슈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30길 53	02-493-5989
8	상계동문약국	약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52(상계동, 형인빌딩 1층)	02-951-8572
9	상계인터넷문고	서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61(상계주공2단지 상가) 지층 1호	02-931-9453
10	센트럴S마트	슈퍼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21	02-939-1465
11	호밀호두(노원점)	제과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54(명석빌딩) 1층 101호	02-936-5152
12	삼형제 무한리필	음식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동로 125(1층)	02-998-5592
13	건영락볼링센터	볼링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삼밭로 258(건영백화점 지하2층)	02-3399-5351
14	통닭연구소	음식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7가길 23	02-931-3339
15	디아떼	카페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459-47	02-952-8694
16	밀겨울	음식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길 9	010-6225-5901
17	병천황토방순대	음식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8길 17	02-935-6655
18	일복	음식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77길 12	02-937-4848
19	두레마을 우동집	음식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21-15	02-994-0010

후원안내

먼저 손 내밀어줄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누군가에겐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 **방법** : 후원금(CMS,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모금함, 기타), 후원물품

▶ **계좌** : 국민은행 841501-04-020275, 신한은행 100-024-899062, 농협 301-0001-4627-21, 우리은행 1006-780-201374, SC은행 231-20-379778

▶ **문의** : 방문, 전화(02-932-4412), 홈페이지(www.srccp.or.kr), 기획팀 후원담당자

※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수입 · 지출내역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 원)

수입		지출		사용내역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76,028,627	이월금	64,456,760	
지정후원금 (외부공모사업 포함)	79,381,230	사업비	112,465,822	재가보성마비인 월동지원사업비, 성인 연극교실 · 미술교실 · 학습동아리, 아동 · 청소년 무용교실 · 운동놀이교실 프로그램 진행비,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진행비, 외부활동 진행비, 교육비 · 치료비 지원 등
비지정후원금	44,211,530	1:1결연후원	20,170,000	치료비, 의약품비, 식비 및 생계비, 교육비 등
		운영비	2,528,805	시설 정비 및 유지비 등
합계	199,621,387		199,621,387	



소녀와 첫눈

김영자

하늘에 하얀 눈이
 펼펼 내리면
 소녀는
 눈이 좋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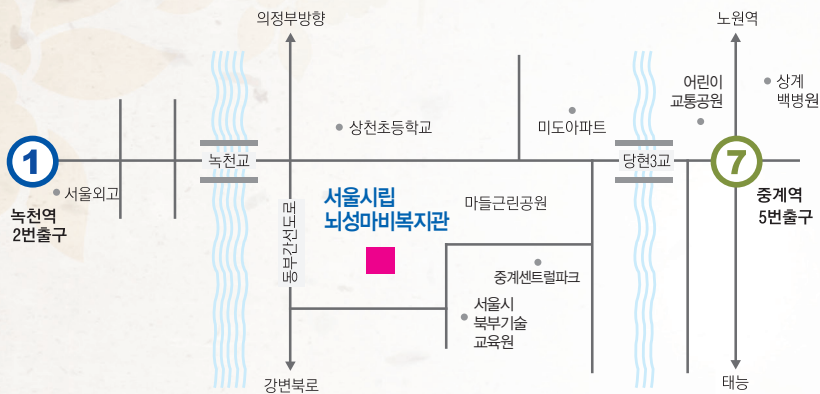
 눈이 내리면
나뭇가지 눈웃을 입고
 온 거리에도
 하얀 옷이 입힌다

 눈이 내리면
소녀도 강아지도
 눈길이 걷기 좋아
 가로등 불빛에
 비추이는 옷을 입다

뇌성마비 작가 김영자님은

김영자 작가는 1967년 출생 직후 뇌성마비장애를 진단받아 학령기에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놓쳤으나 30대에 본 복지관에서 기초학습공부를 시작하면서 배움의 열정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복지관 직문교실에 참여하며 글쓰기에 흥미를 느껴 다양한 작품을 내고 있으며, 한국문해교육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인식개선 문화제에서 글쓰기 실력을 인정받아 수상한바 있습니다.

언제나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하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지하철

7호선 중계역 5번 출구

버스

자선버스 1144, 1137

간선버스 146, 105, 102

마을버스 노원 09번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셔틀

지하철 1, 4호선 창동역 1번 출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Seoul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Cerebral Palsied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 (상계6·7동 771)

Tel.02-932-4411,2,4,5 Fax.02-932-4413 www.srcpp.or.kr